**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역량강화프로그램 개인 결과물**

<청년이 그린 Green New Deal 역량강화프로그램 중 팀별 토론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이학래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는 2050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심분야에 따라 팀이 구성되었다. 그 팀은 재생에너지 확대팀, 전력시장팀, 탈석탄/정의로운 전환팀, 산업/금융팀, 그리고 건물팀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본인은 재생에너지 확대팀 중 에 속해있으며 풍력에너지를 위주로 팀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풍력에너지를 설치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 중 직접 이해관계자를 마을 주민과 풍력에너지 개발사와 제주에너지공사로 설정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었다.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는 공무원, 환경단체, 도의원으로 설정하였다. 특히나 주민 수용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여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이슈를 쟁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양한 사례를 본 후 결정한 것이다. 대표적이 예로 한림해상풍력의 설치에 차질에 생긴 이유는 해상풍력 설치가 전력 과잉으로 인한 컷테일먼트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탐라해상풍력은 원래 계획했던 발전기간보다 9년 늦게 지어졌다. 제주도는 10년 후 육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테스트베드로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와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는 보상을 받는 95%가 있더라도 5%의 소수가 외부 단체와 연결하는 경우 소통 자체가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을 갖게 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원이 증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하였다. 에너지 전환이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언론은 풍력 민원, 소음 위주의 기사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류 사회 인식의 부족으로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로 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뉴스가 에너지부나 경제부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에서 다뤄지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설득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주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주류 사회가 기후위기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존이 위협 받는다는 인식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주류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활동을 수행하며 이뤄내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은 현장을 답사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팀별 토론은 그 기본기를 확인해보고 다듬는 시간이었다. 팀별 토론을 하며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할 주민 주도형 사업 수립을 위한 인터뷰 질문과 소통 채널의 다각화 모색을 위한 인터뷰 질문을 설정하였는데 이 질문들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일조하는 방법을 모색 하고자한다.